

군산 미룡동 고분군 발굴성과 공개

마한역사 복원 위해 실시... 마한계 고분 24기·소환두대도·흑색마연토기 등 위세품 발굴

군산시가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마한 소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 대한 2023년 발굴 및 시굴조사 성과를 공개했다.

군산대학교 내에 위치한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시 서쪽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월명산 산줄기에 해당하며, 해발 40~45m의 능선을 따라 고분과 주거지가 조성돼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가 문화재청과 전라북도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 문화성립의 한축을 담당한 마한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발굴조사는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가 담당했다.

이번 '군산 미룡동 고분군' 발굴조사를 통해 마한계 토광묘 17기, 옹관묘 7기, 주거지 7기 등이 조사됐으며, 한성백제와 마한의 관계를 조망할 수 있는 흑색마연토기 및 지도자급 위세품인 소환두대도, 곡옥 등이 발굴됐다.

또한, 경배, 절정 등 해상교역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다량 발굴되어 군산지역이 고대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서 발굴된 토기 등 유물

부터 해상교역의 중심지였음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변 시굴조사를 통해 마한계 무덤유적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마한유적과 지배자 위세품 및 해상교역 유물 등의 발굴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마한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담당자 및 발굴조사를 진행한 가야문화연구소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24년 군산 미룡동 고분군' 발굴 및 시굴비용을 확보해 오는 2024년 봄 조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임실 꿈의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개최

임실문화원(원장권한대행 박정우)에서 운영하는 임실 꿈의 오케스트라단이 8일 임실군민회관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2021년 예비 거점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로 2년 차로 접어든 임실 꿈의 오케스트라는 관내 초등학교생 65명을 선발하여 주 2회 총 6시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트럼본, 타악기 등 9종의 클래식 악기를 연습하여 전문 강사진을 통해 정기 교육 및 특별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관내 어르신들로 구성된 벨라보체합창단과의 협연으로 10곡 점부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함으로써 주민들과 학부모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계획이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아동·청소년이 오케스트라 합주를 통해 자존감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밝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엘 시스템아 철학과 교육방법론을 바탕으로 '음악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꿈의 오케스트라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연주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도 하고 있다.

임실문화원 박정우 관한대행은 "농촌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접하기 어려운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학교와 공공기관, 그리고 군민의 성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번 정기연주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정기연주회를 통해 1년간 연습해 놀랄 만큼 크게 성장한 우리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커다란 울림을 만드는 벅찬 감동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으로 임실치즈, 육정호와 함께 우리군의 자람이 되어 지역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문화예술 통합 성과공유회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 15일까지 누구나 관람 가능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3년 문화예술 통합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 재단에 따르면 올 해 도내 문화예술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역량 지원을 위해 30개가 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운영, 그 성과를 도민·문화예술단체·예술가와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재단 문화예술본부 차원에서 성과 공유주간(12월 8일~12월 15일)을 정해 모든 지원사업의 성과 전시 및 발표회, 자체평가회 등을 집중 운영함으로써 사업 참여자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2023 문화예술 통합성과공유회 주제인 '예술의 확산, 사람의 성장, 지역의 변화'는 재단 문화예술본부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의 정체성과 목적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먼저 '예술의 확산'은 예술가·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의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창작지원팀의 단위사업들을 담았다. 전시장 내 파드는 예술창작활동지원, 우수콘텐츠 개발·확산지원, 예술창작공간지원, 우수예술단체 육성지원, 예술 일거리지원, 미술유통시장 활성화, 예술교류 및 역량강화, 전북예술인복지지원센터운영 등 총 8개 분야다.

이어 '사람의 성장'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도민의 문화주체성 증진에 기여하는 교육문화팀의 사업을 담았다. 이 파드는 유아·아동·청소년,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중장년 인문활동 지원,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문화예술 역량강화 사업, 지역네트워크 강화, 청년일자리 및 기획역량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성과가 전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변화'는 '예술의 확산'과 '사람의 성장'을 통해 재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의미한다. 문화예술본부가 운영해 온 사업을 통한 지역 간 문화적차 완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성과를 '예술의 확산'과 '사람의 성장' 전시 구역에 녹여내 지역사회 변화에 기여한 문화예술의 가치를 공유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8일 오전 11시 개막식 행사를 시작으로 15일까지 재단 3층 전시실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검은 산수전 서양화가 양규준 작가 개인전 개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검은 산수전이 오는 30일까지 무주군 안성면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칠연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서양화가 양규준 작가(사진)의 개인전으로, 작가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전통적 서법인 흑 기와 흑백의 색감으로 표현해낸 특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는 "검은 산수 그림은 습자지로 스미던 진한 먹색에 대한 내 기억의 반영이자 남태평양의 자연환경 속에서 느낀 산과 바다, 검은 숲에 대한 이미지일지도 모르겠다"며 "공간 속으로 퍼져나가는 흰색의 울림, 까만 밤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오는 희미한 여명처럼 내 삶의 내면에서 떠오르는 기억들과 희망, 그리고 나의 꿈에 대한 기록"이라고 전했다.

양규준 작가는 중앙대학교 미술학과와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미술학과와 선화고교 교사 등을 역임했다. 통인갤러리(서울) 등지에서 20여 회에 걸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한국 현대미술 방법작가회전 등의 단체전에도 160여 차례 참여한 바 있다. 한국과 뉴질랜드를 오가며 그림을 그려오던 작가는 올해 1월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에 동지를 들고 작품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새일센터 사업운영 '잘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 등 역할 충실... 사업운영 평가 A등급 받아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정정희)는 2023년도 새일센터 사업운영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전국 여성새일센터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사업결과를 취·창업지원(취·창업실적, 고용안정성), 서비스제공(구인·구직 발굴 및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사후관리), 센터 운영(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고객만족도, 종사자 관리), 가점(센터특화사업운영) 등 4개 부분으로 나눠 A~D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전국 159개 중 140개 새일센터를 평가해 상위 10% 센터를 A등급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전북새일센터는 2022년도에 도내 경력단절여성 및 취업희망 여성 1,443명에게 취업의 꿈을 실현하도록 해줬고, 새일여성인턴 72명(결혼이민여성 4명 포함)과 2개 기업에 기업환경개선자금 지원했다. 또 52개 여성친화일촌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5개 직업훈련교육과정을 운영해 취업률 93%를 달성하는 등 여성들의 취업 욕구

를 유발하고 취업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에 충실했다.

이 외에도 2022년도에 신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경력단절예방 사업을 통해 취업과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심리노무 고충상담,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또 찾아가는 기업특강, 워크숍지원 등 여성근로자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쳤다.

정정희 원장은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연계 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여성 고용유지를 증대할 수 있도록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향후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찾아가는 기업특강, 기업인사담당자 교류회 등을 개최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전북새일센터(063-254-3610)에 문의하면 맞춤형 직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인턴연계 등 취업연계서비스와 사후관리를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름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며 주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